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가르침을 바로잡으신 예수님(3)

● 읽을 말씀 마 5:43-48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비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궁극적인 구원을 얻기 위해 원수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⑤ 원수 사랑과 궁극적인 구원의 커트라인

45절에 근거하여 원수까지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6절에 또 다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상' 입니다! 천국에서 상 받기를 원하면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거나, 형제에게만 문안하지 말고 원수와 핍박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가능한 것이며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마 5:20).**" 라고 선언하신 후 21-48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한편, 양용의 교수님은 여섯 번째 반제를 설명하시면서 다른 반제들이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루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여 진심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간절히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궁극적인 구원의 조건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의지적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도, 그들에 대한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정말 천국에 못 들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예수님은 계명에 대한 설명 중 처음으로'상'을 언급하셨다.

여섯 가지 반제들을 살펴보면, 먼저 살인과 간음에 대한 설명에서는 지옥 불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가 있습니다(마 5:22, 26, 29-30). 또, 이혼과 맹세의 경우 이 계명들에 대한 설명에 지옥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는 없으나 성경의 다른 곳에는 있습니다(계 21:8, 22:15). 음행 이외의 이혼은 간음이고, 맹세에 대한 교훈은 거짓말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해복수법과 원수도 사랑하라는 계명에 관한 설명에는 지옥에 대한 직접적인 경고도, 다른 성경에 쓰여 있는 간접적인 경고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섯 가지 반제 중 여기에서 처음으로 "상" 이라는 단어가 출현합니다. 그 뒤 6장에도 계속 "상" 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다섯째와 여섯째 반제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데 상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눅 6:35). 그러므로 다섯째와 여섯째 반제는 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명령들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의 일부이기 때문에 전혀 지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상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제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이 명령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온전히'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 지극히 작은 계명을 버린 자는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마 5:19)**"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극히 작은 계명은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 즉 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19절을 말씀하신 후 20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말씀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섯째와 여섯째 반제가 요구하는 대로 온전히 살아야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증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가 전 절에 나오는 "**율법의 일점일획**" 을 뜻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19절을 자세히 보면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정확히 말하면, "**이 계명**"은 율법 전체를 가리키는 동시에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계명들 즉 21-48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는 율법의 전체 계명들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계명들 중의 하나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둘로 구분해서 해석하는 것이 이 구절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키입니다.

그러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 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명일까요? 모든 계명은 성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또 거룩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히 12:14). 그럼에도 불구하고 6계명이나 7계명처럼 준수 여부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계명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훈은 하나님을 온전히 닮는 완전 성화와 관계가 있는 계명들이고 그것들은 구원이 아니라 상과 관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가 그런 계명들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도 그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철저히 닮는 완전 성화와 관계가 있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많은 이들이 가장 수준이 높고 지키기 어려운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난이도가 아니라 대상이 더 중요합니다. 대상이 크면 클수록 그 계명을 지켜야할 당위성도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원수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 다음 큰 것은 사람이며 그중에서 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 다음으로 큰 계명인 것입니다(마 22:34-40). 그런데 사람을 상대로 한 계명들 중 상대의 비중이 가장 낮은 것이 원수와 핍박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가족과 친지가 1순위고, 2순위는 믿음의 가정들, 3순위는 우리를 사랑하고 서로 문안하는 자들, 4순위는 악한 자들, 맨 마지막이 원수와 박해자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가장 작은 계명입니다. 십계명에서도 가장 큰 계명들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들입니다. 그 다음 큰 계명들은 이웃에 대한 계명들인데, 그 안에는 동해복수법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두 계명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 에 해당되는 계명이며, 그 계명들을 온전히 지켜야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 예수님은 결론으로 너희 아버지처럼 온전하라고 하셨다.

본문 48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

라” 는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본문이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다룬 것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구원받은 성도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모두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도달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 명령을 말과 행동으로뿐 아니라 마음과 감정으로까지 ‘온전히’ 지키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매우 확실한 증거입니다.

㉣ 예수님은 팔복에서 원수 사랑을 말씀하시지 않았다.

구원받은 자를 묘사한 팔복에서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말로 끝내셨습니다. 원수와 핍박자를 사랑하고 축복하고 선대하고 간절히 기도해야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 바울도 동일한 내용의 가르침을 궁극적인 구원과 연관시키지 않았다.

바울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 12:14, 17-21).**” 라고 다섯째와 여섯째 반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궁극적인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명령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노력했지만 마음과 감정으로까지 온전히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낙심하거나, 그 상태에 안주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처럼 온전히 원수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핍박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노력해서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상 받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 나눔과 적용

원수와 핍박자를 말과 행동으로뿐 아니라 마음과 감정으로까지 온전히 사랑해야만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낙심하는 마음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구원의 커트라인을 넘어 천국에서도 상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 변화되어야 할 것들을 나누어 봅시다.